

언택트(Un-tact) 시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과의 관계

구옥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awareness,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in Un-tact Era

Ok-Hee Koo*

Professor, Dep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21년 3월-5월 C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t-검정,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감은 3.59점(최대 5점)이었고 성별과 간호학과만족도가 공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적자기인식, 공적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성별로 설명력은 22.9%이었다. 간호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및 공감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는 교과목의 신설과 소집단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증진을 돕는 팀 수업 및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역할연기 수업 등 다양한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키워드 : 공감, 간호대학생,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언택트 시대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awareness, and empath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empathy among 302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C city from March to May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empathy was 3.59 points out of 5, and gender and nursing department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mpathy. The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athy were private self-awareness, public self-awareness, positive self-esteem, and gender,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22.9%.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esteem, self-awareness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urriculum that examines interest in their inner world. Development of various curriculum programs such as team classes that help promote interaction using small groups and role-playing classes that explore and experience one's own or others' thoughts and emotions are suggested.

Key Words : Empathy, Nursing students, Self-awareness, Self-esteem, Un-t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하는 언택트(Un-tact) 서비스 형태는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

격수업 등 이 사회를 뉴노멀 시대 언택트 기반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1]. 컴퓨터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은 통학시간을 줄이며 학습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녹화된 강의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습을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배적이었다[2]. 코로나로 인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Big Data)·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같은 4차 산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2.

*Corresponding Author : Ok-Hee Koo(koh0528@bu.ac.kr)

Received August 16,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Revised September 20,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업혁명은 우리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시대가 오고 있다[3]. 이런 기기와 문명의 발달은 점점 배금주의 사고와 개인주의를 팽배시키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소통의 부재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라는 시대적 환경과 개인의 성향이 증가할수록 언택트 기술은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함과 남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적 공감에 대한 욕망은 더 강열해졌다[3]. 특히 간호(nursing)란 인본주의, 돌봄의 철학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을 수행하며 간호사-대상자간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증진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4], 임상수행능력[5], 대인관계능력[6], 자아존중감[7], 자기인식[8], 타인인식[9], 대인관계 스트레스[8]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언택트 기반 뉴노멀 시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내적 요소인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 증진에 매우 필요하다[10]고 볼 수 있다.

코로나시기에 힘겨운 고3을 보내고 입학한 간호대학 신입생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수준이 다양해진다[11]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학생들의 공감수준을 파악해보는 것은 언택트가 가속화되고 이전의 교육과 달리 지식의 상대성과 주관성 및 개별성을 더욱 중시하는[12] 이 시기에 다양한 교육방식 및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간호 교육자에게도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성인기가 시작되는 대학생 시기는 심리·정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에 실패를 경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13],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학생들에게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 자아상은 사회 적응, 대인관계, 자기주장, 자기표현 등에도 어려움을 갖게 한다[14-16]. Park과 Chung[7]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 대해 공감을 더 잘한다고 하며 공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고 올바른 자기인식 또한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8]로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식 능력이 중요[17]하며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18]. 그러므로 본 연구는 원격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및 공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과 공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C시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1학년(편입생제외)과 4학년(복학생제외) 전수를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Wi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효과크기(f)=0.15, 유의수준(α)=.05, power($1-\beta$)=.95, 관련 변인의 수를 14로 하였을 때 194명이 산출되었다. 자료 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326부(1학년 170부, 4학년 156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02부(1학년 160부, 4학년 14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 도구를 Jon[20]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5문항과 부정적 태도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n[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2 자기인식

자기인식은 Fenigstein et al.[21]의 도구를 Eun[22]이 변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세 하위요인으로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 불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un[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68이었다.

2.3.3 공감

공감은 Davis[23]의 대인간 반응성 지수 검사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를 Park[24]이 한국어로 변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두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공감 14문항, 정서적 공감 14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 [25]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의 수준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의 차이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Scheffe 분석을 하였다.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공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후 회귀 표준화 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원격 온라인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관리 및 3년간 보관 된 후 연구자가 직접 분쇄·폐기함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 유무, 학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기대도,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1학년의 경우 20-22세가 144명이었고, 4학년의 경우 22-25세가 97명이었다. 여학생이 258명(85.4%), 남학생이 44명(14.6%)이었으며 종교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1st	≤20	16	5.3
		20-22	144	47.7
	4th	20-22	7	2.3
		22-25	97	32.1
		25-30	38	12.6
Gender	Male	44	14.6	
	Female	258	85.4	
Religion	Yes	108	35.8	
	No	194	64.2	
Major decision maker	Self	284	94.0	
	Parents	18	6.0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117	38.6	
	Satisfied	144	47.5	
	Moderate	39	12.9	
	Dissatisfied	3	1.0	
Satisfaction or expecta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92	30.5	
	Satisfied	145	48.0	
	Moderate	55	18.2	
	Dissatisfied	10	3.3	
Grade	Good	85	28.1	
	Average	203	67.3	
	Bad	14	4.6	

없는 경우가 194명(64.2%)이었다. 간호학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284명(94%)이었고 간호학과만족도는 261명(86.1%)이 만족이상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37명(78.5%)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학업성적은 288명(95.4%)이 평균 이상이었다(Table 1).

3.2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및 공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및 공감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98±0.53 이었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20±0.58, 자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2.75±0.58 이었다. 자기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47±0.37 이었으며 사적 자기인식은 3.64±

0.49, 공적 자기인식은 3.83±0.64, 사회적 불안은 2.91±0.84 이었다. 공감은 5점 만점에 3.59±0.38 이었으며 인지적 공감은 3.67±0.50, 정서적 공감은 3.50±0.39 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검증을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년(t=6.398, p=.012), 연령(F=2.756, p=.028), 성별(t=5.156, p=.024), 간호학과 만족도(F=7.627, p=.000), 대학생활 만족도(F=6.706, p=.000), 학업성적(F=3.145, p=.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인식은 간호학과 만족도(F=3.712, p=.012), 대학생활 만족도(F=4.523,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에서는 성별(t=6.416, p=.012), 간호학과 만족도(F=3.906,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그룹이 불만족한 그룹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간호학과에 매우 만족하거나 보통인 그룹이 불만족한 그룹에 비해 공감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른 변수의 사후 분석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study variable

(N=302)

Variables		Mean±SD	Scale
Self-esteem	Positive	3.20±0.58	Max 4
	Negative	2.75±0.58	
	Total	2.98±0.53	
Self-awareness	Private	3.64±0.49	Max 5
	Public	3.83±0.64	
	Social anxiety	2.91±0.84	
	Total	3.47±0.37	
Empathy	Cognitive	3.67±0.50	Max 5
	Emotional	3.50±0.39	
	Total	3.59±0.38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level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2)

Variables	Categories	Self-esteem		Self-awareness		Empathy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Grade	1st	2.90±0.53	6.398 (.012)	3.54±0.30	3.757 (.054)	3.61±0.37	1.000 (.318)	
	4th	3.06±0.53		3.42±0.38		3.56±0.39		
Age	1st	≤20	2.756 (.028)	3.56±0.22	1.514 (.198)	3.65±0.49	.678 (.608)	
		20-22		2.89±0.53		3.50±0.32		3.60±0.35
		20-22		3.33±0.37		3.54±0.44		3.54±0.36
	4th	22-25		3.13±0.52		3.46±0.45		3.50±0.44
		25-30		2.98±0.53		3.47±0.37		3.59±0.38
Gender	Male	3.14±0.50	5.156 (.024)	3.44±0.47	.295 (.588)	3.45±0.29	6.416 (.012)	
	Female	2.95±0.54		3.47±0.35		3.61±0.39		
Religion	Yes	2.99±0.54	3.660 (.057)	3.50±0.33	1.531 (.217)	3.59±0.35	.013 (.910)	
	No	2.77±0.51		3.45±0.39		3.59±0.40		
Major decision maker	Self	2.99±0.54	2.774 (.097)	3.47±0.37	.024 (.876)	3.59±0.38	1.016 (.314)	
	Parents	2.77±0.49		3.40±0.33		3.50±0.41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d	3.14±0.53	7.627 (.000)	3.55±0.39	3.712 (.012)	3.66±0.40	3.906 (.009) a,c,d	
	Satisfied ^b	2.90±0.52		3.44±0.35		3.54±0.36		
	Moderate ^c	2.76±0.48		3.38±0.30		3.60±0.33		
	Dissatisfied ^d	2.73±0.32		3.18±0.38		3.11±0.54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d	3.13±0.58	6.706 (.000) a,b,d	3.57±0.37	4.523 (.004) a,b,d	3.62±0.41	1.263 (.287)	
	Satisfied ^b	2.97±0.50		3.45±0.36		3.57±0.36		
	Moderate ^c	2.80±0.49		3.39±0.36		3.61±0.36		
	Dissatisfied ^d	2.58±0.41		3.24±0.31		3.40±0.40		
Grade	Good	3.08±0.56	3.145 (.044)	3.52±0.32	1.790 (.169)	3.57±0.35	.108 (.897)	
	Average	2.94±0.52		3.45±0.38		3.59±0.39		
	Bad	2.78±0.43		3.35±0.39		3.60±0.4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302)

	Self-esteem-positive	Self-esteem-negative	Self-awareness-private	Self-awareness-public	Self-awareness-social anxiety	Empathy
Self-esteem-positive	1	.712**	.236**	-.110	.492**	.206**
Self-esteem-negative		1	.038	-.108	.521**	.083
Self-awareness-private			1	.390**	-.059	.423**
Self-awareness-public				1	-.295**	.299**
Self-awareness-social anxiety					1	-.056
Empathy						1

**p<.01

Table 5. Factors affecting empathy

(N=302)

Variables	B	S.E.	β	t	p	VIF	Tolerance	Durbin-Watson
Constant	1.811	.189		9.563	.000			1.833
Self-awareness-private	.234	.045	.300	5.182	.000	1.307	.765	
Self-awareness-public	.113	.033	.190	3.370	.001	1.244	.804	
Self-esteem-positive	.115	.036	.174	3.228	.001	1.139	.878	
Gender	.145	.055	.135	2.624	.009	1.029	.972	

F value : 23.346, p-value: <.001, R² : .239, adjusted R² : .229

3.4 대상자의 공감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gamma=.206, p<.01$), 사적 자기인식($\gamma=.423, p<.01$), 공적 자기인식($\gamma=.299,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gamma=.083, p>.05$) 및 사회적 불안($\gamma=-.056,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3.5 대상자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공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과 학과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공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태도,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33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29~1.307로 기준치 10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765~0.972로 0.1 이상으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적 자기인식($\beta=.300, p=.000$), 공적 자기인식($\beta=.190, p=.001$), 긍정적 자아존중감($\beta=.174, p=.001$), 성별($\beta=.135, p=.009$)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들은 공감을 22.9%를 설명하였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

수는 사적 자기인식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언택트 시대 원격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공감 수준은 3.59점(최대 5점)이었다. 학년별 평균을 살펴보면 1학년은 평균 3.61점으로 1학년 대상의 연구[26, 27] 3.48-3.55점 보다 다소 높았다. 4학년의 평균은 3.56점으로 졸업생 대상 Ji[28]의 연구 3.68점 보다 낮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공감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11]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평균치를 비교하면 대면수업을 진행하던 기존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Lim[29]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방식과 공감과의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대면수업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대면과 비대면의 수업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관심과 피드백이 공감능력 향상에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2.98점(최대 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1학년 대상 Ryu[27]의 연구 2.79보다는 약간 높고 3,4학년 대상 Park과 Chung[7]의 연구 3.1보다는 약간 낮았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받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am[1]의 연구에서는 평균 3.76점(최대 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Iem[3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이 심

리적 위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독립적이며 주도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적 정서와 요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대처자원이 되는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에게 자아개념 확립과 발달과정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다[18]. 또한 학업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31] 원격수업에 필요한 정보검색 능력과 뉴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대한 대학의 더욱 체계적인 교육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자기인식 수준은 3.47(최대 5점)로 코로나 이전 Kang[32]의 연구 3.47점과 같다.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자기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31]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과 변수와의 차이검증에서 공감은 성별과 학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에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에서는 사후검증 결과 매우 만족하거나 보통인 학생 집단이 불만족한 학생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8, 33]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와 같다. 하지만 최근 간호대학에 남학생의 입학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남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학년, 연령, 성별,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이었다.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선행연구[34-36]의 결과와 같다. 학년별에서는 4학년의 자아존중감이 1학년보다 높았으나 연령별에서는 어린학생이 나이든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Moon과 Cho[36] 연구에서는 학년과 전공만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Oh와 Kang[3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자기인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 이었다. Kang[32]의 연구에서는 주거형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 임상실습경험,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기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Oh 등[38]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임상실습경험이 있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 이전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다른 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공감은 사적자기인식과 순 상관관계($r=.42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공감에 높은 것은 Kang[32]의 연구 결과 유사하였으나 세부항목 중 사회적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자아존중감도 공감과 순 상관관계($r=.206, p<.01$)를 보여 Park과 Chung[7] 및 Nam[3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공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성별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2.9%이었다. Kim과 Lee[8]는 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기인식을 제시했으며 Kang[32]도 내적자기인식과 내적타인인식이 공감의 예측인자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공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는 몇몇 진행되었으나 [40]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공감형성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한 것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및 공감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는 교과목의 신설과 소집단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증진을 돕는 팀 수업 및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역할연기 수업 등 다양한 교과과정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연스럽게 발전한 언택트 기술이 우리 사회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기술의 발달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남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개인주의를 원하고 있어 인간적인 공감 능력과 휴먼터치(Human touch) 감성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이라고 한다[3]. 그러므로 비대면이 일상의 중심이 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공감과 소통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대학은 디지털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변화된 공감교육과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30]고 사료된다. 그리고 간호계의 미래 주역인 간호대학생이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기인식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의 철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공감력 높은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1년 3월-5월 천안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공감은 3.59점(최대 5점)이었고 성별, 학과만족도가 공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적자기인식, 공적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성별로 설명력은 22.9%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사적 자기인식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언택트 시대에도 간호대학생이 공감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변수들을 포함한 반복연구와 공감능력 증진을 위해 언택트 시대의 교육환경에 알맞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전국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대상 확대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N. Kim, & S. W. Kam. (2021). The effect of lecture satisfaction for non-face-to-face video lessons on the learning effect and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for COVID-19 in South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363-387.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7197628>
- [2] J. H. Lee. (2021. 05. 28). *In order for universities to survive after COVID-19*. Joongang-opinion: Seou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7606#home>
- [3] I. H. Yun. (2021). A Image of the Human Being Necessar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nminjok Emunhak*, 91, 173-215.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7375438>,
- [4] N. H. Kim. (2018).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JMAHS*, 8(6), 735-744.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5457132>
- [5] E. H. Kim. (2018).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 of KoCon.a*, 18(8), 326-337.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5545480>
- [6]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3299189>
- [7] J. H. Park, & S. K. Ch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98-7707. DOI : 10.5762/KAIS.2015.16.11.7698
- [8] H. J. Kim, & M. S. Lee. (2015).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1(2), 237-245. DOI : 10.5977/jkasne.2015.21.2.237
- [9] J. A. Park. (2018).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781-798. DOI : 10.22251/jlcci.2018.18.22.781
- [10] K. M. Kim.(2020). The Views on Education of D. H. Lawrence and T. S. Eliot. *D.H. Lawrence Studies*, 28(1), 19-32.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6926822>
- [11] J. S. Kim, & S. H. Ahn. (2018).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s Students for Measuring Empath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3), 259-268.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5545354>
- [12] H. Y. Ahn. (2010). *A Study on the Music Education Philosophy of Elliott and Reimer from a Perspective of Postmodernism*.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1984347>
- [13] H. W. Jin. (2021). *Effect of Untact Group Expressive Arts Psychotherapy on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5904191>
- [14] J. E. Jung. (2013). *(The) casu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

- T13293262
- [15] H. Y. Kim. (2012).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orea: Changwon.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2720026>
- [16] J. Y. Sim. (2013).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ttitude maturity, parental attachment, psychological separation,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of undergraduat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3143052>
- [17] Y. J. Nam. (2017).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Self-Acceptance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http://www.riss.kr/link?id=T14439134>
- [18] O. K. Koo.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7), 172-182.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7797486>
- [19]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www.riss.kr/link?id=M2571511>
- [20]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a collection of treatises*, Vol. 11. 107-130. <http://www.riss.kr/link?id=A3215438>
- [21] A. Fenigstein, M. F. Scheier, & A. H. Buss.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 Consult Clin Psychol*, 43(4), 22-52. DOI : 10.1037/h0076760
- [22] H. G. Eun. (2001).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Korean J Youth Couns*, 9, pp. 136-157.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b4de8a0cef85f366aae8a972f9116fb
- [23] M. H. Davis.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 Pers Soc Psychol*, 44(1), 113-126. DOI : 10.1037/0022-3514.44.1.113
- [24] S. H. Park. (2004). *Empathy-yesterday and today* Seoul: Hakjisa. <http://www.riss.kr/link?id=M9291892>
- [25] SPSS IBM Corp. Released 2011.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NY : IBM Corp. <https://ibm-spss-statistics.software.informer.com/20.0/>
- [26] J. H. Park. (2017). Essential competency of new graduate registered nurse that has been perceived by experienced senior nurses. *AJMAHS*, 7(1), 567-575. DOI : <http://www.riss.kr/link?id=A103595681>
- [27] Y. M. Ryu. (2015).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p.9-10, Korea. <http://www.riss.kr/link?id=T13744005>
- [28] E. J. Ji. (2014).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85-1697. <http://www.riss.kr/link?id=A101601471>
- [29] A. R. Lim. (2021). A Study on Effectiveness of Onlin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Due to COVID-19: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57-66.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7293252>
- [30] Y, S. Iem. (2021). Building Relationships in the Non-face-to-face Era: Changes in Human Relations in the Youth through the Gaze of University Students and Qualitative Exploration for Empathy Education.. *Social Science Studies*, 29(2), 126-181.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7991560>
- [31] J. H. Kwon, & K. H. Kim. (2013).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Focusing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regulated learnin. *Forum For Youth Culture*, Vol- No.35, 31-58.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3841921>
- [32] M. O. Kang. (2015).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7, 207-238. DOI : 10.35504/kph.2015..47.008
- [33] J. A. Park. (2018).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781-798. DOI : 10.22251/jlcci.2018.18.22.781
- [34] K. S. Kan, & Y. S. Ko. (2016).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11(2), 179-189. DOI : 10.15715/kjhcom.2016.11.2.179
- [35] E. K. Lee, & O. H. Kim. (2013). Comparison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15(4)B, 2135-2148.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1600071>
- [36] S. J. Moon, & K. A. Cho. (2019).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Self 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313-328.
DOI : 10.22251/jlcci.2019.19.11.313
- [37] E. J. Oh, & H. S. Kang. (2017).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Nurse's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Freshm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21, 8(5), 745-760.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4188256>
- [38] E. J. Oh, S. H. Ko, J. Y. Kim, & S. R. Kim. (2015).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1(4), 426-434.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102915730>
- [39] Y. J. Nam. (2017).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Self-Acceptance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http://www.riss.kr/link?id=T14439134>
- [40] S. M. Hong. (2020).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Empathy of Korean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11(5), 369-383.
DOI : 10.22143/HSS21.11.5.27

구 옥 희(Ok-Hee Koo)

[정회원]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리더십, 간호윤리, 인성, 전문직 관
- E-Mail : koh0528@bu.ac.kr